



觀音鳥가 되리라 ①

주부신행담

대대로 불교를 신봉해 온 집안의 영향으로 부처님께 귀의하는데 대한 거부감은 없었다. 나이 스물 일곱에 50대의 아주머니들을 따라 해인사를 다녔다.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기도를 하는 모임의 '예기보살'로 따라다니며 부처님께 귀의했던 것이다. 어머니뻘 되는 분들과 어울려 기도를 다닌다는 것이 좀 어색하기도 했지만 어울림이 목적이라 기도가 목적이었으므로 별 탈이 없었다. 그런데 나 스스로 '이제 혼자 기도를 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이끄는 스님의 배려로 해인사 응진전에서 혼자 철야정진을 할 수 있었다. 저녁 식사 이후 줄곧 절을 하고 관음정근을 하다가 지치고 지치면 앉아 몸과 마음을 쉬는 기도였다. 그때는 특별한 소망도 원력도 없었다. 그저 기도를 하는 것이 나의 운명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서울로 돌아 오면 모든 생활이 즐거웠다.

겨울 매주 해인사를 다니며 나는 기도하는 즐거움을 즐겼다. 성철스님으로부터 실상행이라는 법명을 받았을 때는 '나는 행복한 불자야'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3일간의 용맹정진을 계획했다. 3일간 최소한의 음식과 잠을 제외하고는 오직

기도만 하겠다는 것이었다. 지금도 그때 왜 그런 당찬 계획을 세우려 했는지는 모른다.

"스님, 3일만 응진전에서 살고 싶어요."
"거기서 뭐하게?"
"그냥요. 관세음 보살님을 친견하고 싶어서요."
"관세음보살님이 거기 있다더냐?"
.....

어렵게 허락을 받고 응진전에서 기도를 시작했다. 오전에는 절을 하고 간단한 휴식을 한 후 오후에는 정근을 했다. 저녁에는 다시 절을 하고 자정을 넘기면 정근을 하고 새벽에는 조용히 앉아 몸과 마음을 가라 앉히고 잠시 눈을 붙이는 것이 기도의 일정이었다. 겨울이었기 때문에 밥당은 매우 추웠지만

난로를 피우거나 두터운 옷을 입지도 않았다. 식사량도 평소보다 반가량 줄였고 생수는 주전자 채로 준비했다. 기암 시작 한 기도는 고행이어서였다.

그렇게 시작된 기도의 첫날은 잘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두번째 날은 육체적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절을 하는 두다리와 허리는 끊어져 나갈 것 같았다. 그 아픔은 다시 나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후들후들 떨리는 현상으로 변했다. 절을 하기는 하는데 내 다리로 하는지 남의 다리로 하는지 모를 정도였다. 다리는 절과 상관이 없는 존재고 오직 내 정신만이 절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끝내는 절을 하며 다리의 통증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였다. 이미 목도 쉬어 있었다. 염주를 돌리며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목소리도 내 목에서 나오는지 의심스러웠다. 아

◆ Is he not given to sensual pleasures? - so said the Yakkha Hemavata - is his mind undisturbed? Has he overcome folly? does he see clearly in all things dhammas?
그는 음탕한 향락에 빠지는 일은 없을까? 그의 마음은 혼탁하지는 않을까? 마음은 평정한가? 어리석은 행동에서 벗어났을까? 그리고 모든 사물의 진법을 똑똑히 볼수 있을까? 설산아차가 말했다.

◆ He is not given to sensual pleasures - so said the Yakkha Stagra - and his mind is undisturbed; he has overcome all folly; Buddha sees clearly in (all) things.
그분은 음탕한 향락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혼탁하지 않습니다. 그는 평정하며, 또한 모든 사물의 진법을 똑똑히 볼 수 있다. 설산아차가 말했다.

◆ Is he endowed with knowledge? - so said the Yakkha Hemavata - is his conduct pure?
그는 지혜를 갖추고 있을까? 그의 행동은 고결할까? 그는 고(苦)를 소멸했을까? 속세에 다시 태어나는 않을까? 설산아차가 말했다.

◆ He is endowed with knowledge - so said the Yakkha Satagira - and his conduct is pure; all his passions have been destroyed; there is no new birth for him.
그분은 지혜를 갖추었고 있을까? 그의 행동은 고결하다. 그분은 고(苦)를 소멸해버렸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는 속세에 태어나는 않는다.

푸르른 날

—서정주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기 저, 가을 꽃 자리
초록이 지워 단풍 드는데

눈이 나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

가슴으로 글을 읽는 계절 가을. 한권의 시집을 들고 전 시회장을 찾자 딱 좋은 사람의 계절 가을을 맞아 마음을 풍성히 해주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실천문학사는 문학의 해를 맞아 우리나라 대표시인 40명의 시를 그림과 함께 묶은 시화집 <그림으로 읽는 한국의 명시>를 펴내고 오는 24일까지 학교회관에서 시화집에 수록된 그림 40점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갖고 있다. 이 시화집에는 '진달래꽃' (김소월) '푸르른 날' (송수남 그림) (서정주) '승무' (조지훈) '꽃' (김수영) '문외마루에 가서' (고은) 등의 명시와 함께 이대원 송수남 임옥상 이만익 이일종 씨등 38명의 화가의 그림이 수록됐다. 시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펼쳐지는 상상화와 화가들의 명시감상법을 비교하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속>



3일동안 절과 정근 반복하니 온몸이 쉬시고 목도 쉬었다 절을 하는 것은 오직 정신뿐...

무든 힘들다고 계획을 바꾸거나 중단할 수는 없었다. 둘째날의 고통은 셋째날의 새벽 깊은 잠으로 어느정도 극복했다. 단 두시간의 새벽잠이 그렇게 길게 수 있다는데 무척 놀라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보다 큰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었다. 낮 기도를 마치고 저녁 시간이 되면서 웬일인지 몸이 뜻대로 움직여 주질 않았다. 온 몸이 서걱서걱 모래 소리를 내는듯 하다가 목신목신 쉬시고 결리기도 했다. '이러다가 병이 나지 않을까'란 생각이 났고 마음이 약해졌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니야, 지금이 고비야. 마구나가 쳐들어 오는거야.'라는 장해 뜻밖의 생각이 온 몸을 사로잡는 것을 느꼈다.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탄 ④5

have his passions been destroyed? is there no new birth (for him)?
그는 지혜를 갖추고 있을까? 그의 행동은 고결할까? 그는 고(苦)를 소멸했을까? 속세에 다시 태어나는 않을까? 설산아차가 말했다.

◆ He is endowed with knowledge - so said the Yakkha Satagira - and his conduct is pure; all his passions have been destroyed; there is no new birth for him.
그분은 지혜를 갖추었고 있을까? 그의 행동은 고결하다. 그분은 고(苦)를 소멸해버렸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는 속세에 태어나는 않는다.

*sensual (a) 음탕한, 관능적인
*undisturbed (a) 괴롭혀지지 않은, 평정한
*folly (a)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생각
*overcome (v) 이기다, 극복하다
*be endowed with ~을 타고나다, ~이 갖다
*pass (a) 순수한, 고결한

오종욱 기자

1996 문학의 해

해외불교문화 다이제스트

히말리아의 새 ⑥·권
루디아드 킨링 작

그 마라하타는 영국 측량국이 관리하는 첩보원 E23이었다. 그는 킨의 도움으로 경찰의 눈을 피해 달아났다. 그는 활동하던 지역에서 최인으로 물러 몸을 숨겨야 하는 처지였던 것이다.

킨과 노스님의 여행은 계속 됐

다. "고원지대로 가는 사람은 어머니에게로 가는 것이다." 며칠을 걸어 3천 미터 높이에 이르자 바람은 살을 에이는 듯 했다. 킨은 한 마을에서 담요를 얻어 몸에 둘렀다.

"이 산들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벨라야 진자 고원지대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까지 것은 추워라고 할 수도 없지."

킨과 노스님의 여행은 고산지대를 따라 계속 됐다. 스님은 기운이

새로 솟아 오르는 듯 했으나 며칠이 지나자 다시 발걸음이 힘겨워졌다.

"산 중에서 가장 축복 받은 산이여, 붓다의 화살은 나에게 떨어지지 않았도다. 난 다시는 너의 공기를 숨쉬지 않으리라!"

킨은 풍인의 잘 지란 곡식들을 바라보며 스님을 위로했다.

"분명 이 근처에 화살이 떨어졌어요. 이제부터 천천히 걸기로 해요. 하루에 4키로만 걸어요. 스님의 강은 이제 다 닦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다 우리의 추구는 곧 이루어질거야."

킨의 지극한 시봉을 받은 노스님은 며칠내로 찾아 올 해탈의 경지를 예견했다. 두 사람은 인도의 대간선도로서서 만났던 노부인의 집을 찾았다. 놀랍게도 그곳에서 킨은 마흐브 알리와 하리 바브를 만났다. 그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정보 서류와 E23이 찾던 편지의 형방이었다. 어느날 스님은 강물에 빠졌었고 킨은 재빨리 스님을 구했

노스님의 미소는 사랑하는 사람을 피안에 이르게 하는 자비였다

다. 그리고 스님은 명상에 잠기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킨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 또다시 의문을 던지다 잠들었고 노스님과 마흐브이 킨을 찾아 경야를 했다. 킨이 누워 있던 풀 위에서 노스님은 좌선

을 하고 있었다. 한참 동안의 침묵 뒤에 스님이 말했다.

"실로 내 영혼은 자유로워 졌다. 그리고 독수리처럼 원을 그리면서 실제로 테슈 리마도 다른 어떤 영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

았다. 나는 깊은 명상 속에서 강을 보았다. 그 강은 내 발 아래서 흐르고 있었다. 화살의 강이었다. 나는 화살의 강을 찾았다. 명상에서 깨어나 보니 강은 내게로 와 있었다. 내 영혼의 아들아, 나는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듯이 널 자유롭게 하기 위해 해탈의 문턱에서 내 영혼을 되돌렸다. 생의 수레바퀴는 어긋나지 않았다. 우리의 해탈은 이제 눈앞에 있다. 이리 오너라."

노스님은 경건하게 말을 마치고 무릎위에 두 손을 내려 놓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자기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피안에 이르게 하는 자비로운 미소였다.



생할 속의 불교 ⑧9

놓고 쉬운 잃는 게 아니라 얻는 것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며 몸으로 느끼고 뜻으로 살핀다.

우리는 대상을 그렇게 인식함으로써 나와 세계를 구분한다. 주체와 객체의 분립이다.

그결과 우리들은 안으로 보면 자아가 있고 밖으로 보면 세계가 있다고 확신한다.

그런 확신은 나아가 자아와 세계를 고정된 실재(實在)로 보게 만든다.

그러나 화석처럼 굳어진 불변의 자아, 불변의 세계는 없다. 불변이라면 영원한 것인데 과연 영원한 자아,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모든것은 변한다. 한 순간도 고정된 것은 없다. 고로 불변의 자아, 변치 않는 세계란 없다.

그렇다면 자아가 있고 세계가 있다는 생각은 허구인가?

우리들은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아의 실재를 잘 모른다. 흔히들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르겠다'고 한다. 독립된 자아가 있다고 믿으면서도 그 자아를 잘 모르겠다(知)한다면 그런 자아는 과연 어떤 자아일까?

또 할 모르면서도 자아의 실재를 고립할 수 있을까?

대상으로 보이는 바깥 세계도 일정한 모습이 아니다. 내가 보는 세계조차도 때와 장소, 나의 감정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또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보게 되는 세계일지라도 보는 이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 보인다. 좋은 세상, 나쁜 세상 천차 만별로 비춰진다.

따라서 보는 주체도 보이는 대상도 따지고 보면 정해진 모양은 없다. 불가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의 연기(緣起) 작용일 뿐이라고 한다. 쉬운 말

로게 눈에 안경이라는 소리다.

안·이·비·살·신·의 육근에 비취진 색·성·향·미·촉·법이 우리 마음의 꾸미는 작용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드러 날 뿐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꾸미는 마음이 그때 그때 자아와 세계의 내용을 정한다는 뜻이다.

고로 일체 유심조일뿐 고정된 자아, 고정된 세계는 없다는 것이다.

꾸미는 마음은 탐진치에 의해 좌우된다. 가령 탐심이 강할 수록 자아의식이 강해지고 세계의 모습도 견고해 진다. 탐심이 적다면 자아의식도 느슨해지고 세계의 모습도 유연해진다.

나쁜 마음이면 자아의식과 세계는 악하게 변하고 좋은 마음이면 자아의식과 세계는 선하게 변한다.

고로 마음으로 한 생각 돌리는 데 따라 나 라는 존재나 대상세계는 얼마든지 모습을 바꾸게 된다.

사람마다 꾸미는 마음이 다르다면 세계가 다르게 된다.

자아와 세계는 고정된 모습의 어떤 실재가 아니라 오로지 내 꾸미는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불교는 해탈을 지향한다. 해탈이란 다음아닌 이 꾸미는 마음, 탐진치에 의해 좌우되는 마음을 바꾸는 것, 즉 자아와 세계는 고정된 게 아니라 나의 망심에 의해 벌어진 것임을 알아 그 망심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망심만 여의면 보는 눈으로부터 자유롭고, 보이는 눈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진다.

고로 불가에서는 탐진치 망심을 버리라고 가르친다. 놓고라고 한다.

자아와 대상에 얽매는 마음을 쉬라고 한다. 놓고 쉬는 것은 잃는 게 아니라 버리고 얻는 도리이기 때문이다.

협찬: 임소정